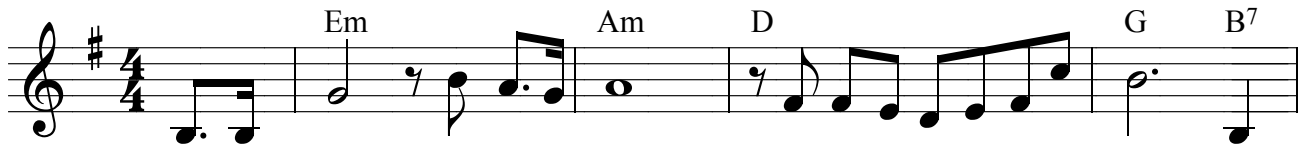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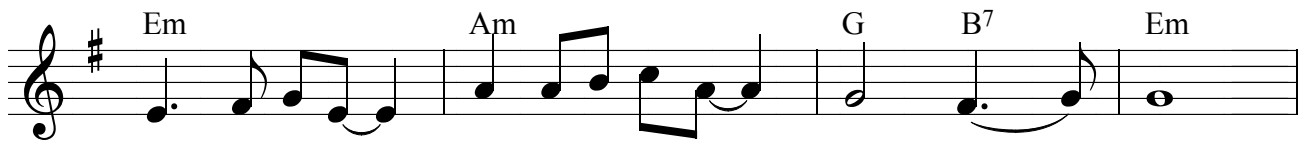


채수련 작사  
김동국 작곡



1. 넓고 큰 바다 위에 외로운 작은 배 하나 이  
2. 어두운 바다 위에 생명의 돛단배 하나 어



몸을 싣고 - 저 천성 향해 - 갈 때 - 에  
뚝을 뚫고 - 밝은 빛 향해 - 갈 때 - 에



때로는 - 사나운 풍랑일어 삼키려 하나 내  
때로는 - 괴로운 장애물이 앞을 막으 나 내



영혼아 두려워 말고 잠잠히 주만 바라볼지라  
영혼아 두려워 말고 잠잠히 주만 바라볼지라



저 멀리 수평선 너머 나의 - 구원이 신



주 예수를 만날때까지 찬양하며 가리라